

29

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림프절 병기 결정에 추가 국소 FDG-PET의 유용성

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, 내과학교실¹, 흉부외과학교실²,
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교실³

소 영¹, 강원준, 정재민, 이동수, 정준기,
이명철, 한성구¹, 성숙환², 송호천³, 범희승³

목적: 전신 FDG-PET 촬영 후 흉부 추가 촬영이 림프절 병기 결정에 도움이 되는 지 알아보았다. **방법:** OSEM법으로 PET 영상 재구성을 시작한 2000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병기 결정을 위하여 전신 및 흉부 국소 PET 촬영 후 개흉술이 시행된 77명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전신 PET에서 종격동 림프절이 관찰되었던 17명(63±5세, 남14, 여3)을 대상으로 하였다. 전신 투사 스캔(2분/FOV) 후 FDG 주사 60분 제 전신 촬영(5분/FOV) 후 국소 투사 스캔(8.5분) 후 20분간 국소 영상을 촬영하였다. ROC 곡선 분석을 이용하여 총 32개 림프절 군의 전신 최대 SUV, 국소 최대 SUV 및 SUV의 % 증가 각각의 진단 성능을 알아보았다. **성적:** 병리학적으로 13개 림프절 군이 양성, 19개 림프절 군이 양성이었다. 전신 최대 SUV 분포는 1.33~5.05, AUC 0.77, SUV 2.89 기준으로 예민도 77%, 특이도 84%이었다. 국소 최대 SUV 분포는 2.32~8.59, AUC 0.79, SUV 3.63 기준으로 예민도 77%, 특이도 84%이었다. SUV % 증가 분포는 -15~150%, AUC 0.72, % 증가 51.8% 기준으로 예민도 38.5%, 특이도 100%이었다. **결론:** 추가 국소 FDG-PET 촬영은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림프절 병기 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.

30

식도암의 병기 결정에 있어 컴퓨터단층촬영술과 양전자단층촬영술의 비교

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삼성서울병원 핵의학교실, 흉부외과학교실¹

김영환¹, 이경한, 윤준기, 최용수¹, 이은정, 장홍주, 최 용, 최연성, 김상은, 심영목¹, 김병태

배경: 식도암 수술 전의 병기는 예후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, 컴퓨터단층촬영술(CT)과 초음파내시경 등이 고식적으로 사용되어 왔다. 이에 양전자단층촬영술(PET)의 병기결정 성적을 CT와 비교 분석해 보았다. **방법:** 대상은 1997년 2월부터 2002년 6월까지 새로이 식도암 진단을 받아 수술을 받은 환자 142명(62.3±8.3세)이며 모두 수술 전에 CT와 PET을 시행 받았다. 두 개의 검사에서 각각 N 병기와 M 병기를 평가하였으며 이를 수술 후 병리조직결과와 비교하여 일치정도를 확인하였다. **결과:** 수술 후 병리조직결과에서 N1 73명, M1 14명이었다. N 병기에서 CT는 예민도, 특이도, 정확도가 각각 35.6%, 89.9%, 62.0%이었으며 PET은 각각 58.9%, 71.0%, 64.1%이었다. 또한 전이에 대한 평가(M 병기)에서 CT는 예민도, 특이도, 정확도가 각각 14.3%, 96.9%, 88.7%이었으며 PET은 각각 50.0%, 94.5%, 90.1%이었다. 수술시 병리학적 병기와 비교하여서는 PET 병기가 CT 병기보다 일치율이 유의하게 높았다. **결론:** 이상에서 PET는 식도암의 전이 병변을 찾는 데 CT보다 예민하였으며, 더 정확한 병기결정에 도움이 되었다.